

# 광주형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市-대학 힘 모은다

### 광주시-9개 대학 성공 추진 상생발전협약 체결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인력양성협의회' 구성

광주시와 지역 9개 대학이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함께 나선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완성차 공장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해석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지역 9개대학과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식에는 전남대·조선대·광주대·호남대·남부대·서영대·송원대·조선이공대·한국폴리텍(V)대학 등 지역 대학 총장·학장이 참여했다.

광주시와 지역대학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자동차산업 관련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지역 대학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짜임새 있게 추진하려고 광주시와 9개 대학이 참여한 '인력양성협의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대학생들의 핵심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개발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9개 대학은 예비취업자인 대학생들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노동인권 개선 및 권리보호 증진을 위해 노동인권 강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도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는 광주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체

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이 됐다"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는 만큼 지역대학이 양질의 인재양성 교육·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우리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은 이날 초 광주시와 지역대학

자도차 관련 학과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의 초기 안착은 물론 공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완성차공장 인력 채용에 대비해 체계적인 자동차산업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성사됐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투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을 마치고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완성차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영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일자리 성공 추진을 위한 '광주시-지역 대학교 상생발전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조순계 조선이공대 총장, 이용연 서영대학교 부총장, 김동복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도재운 한국폴리텍(V)대학 학장, 이시정,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 김혁중 광주대학교 총장, 한은미 전남대학교 부총장, 홍성금 조선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 금호석화 등 5개사 공동 대기환경 개선 대책도 '퇴짜'

###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 "기업별 세부대책 마련해야"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5개 기업이 공동으로 대기 환경 개선대책을 내놓았다가 '퇴짜'를 맞았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21일 여수시 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5개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기환경 시설개선 대책'과 관련, 기업별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5개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3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관련 대책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미세먼지 저감(1620억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

터링 강화(140억원) ▲환경시설 시스템 최적화(26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개선안을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410억원을 투입, 발전시설을 바꾸고 430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적방지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400억원을 들여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을 4300 t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제조공정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80억원을 투자하겠다고는 방안도 내놓았다.

오는 2023년까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안도 제시됐다. 2023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확대하고 환경설비·시스템 운영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115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계

획도 포함됐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그러나 이들 기업의 '공공' 대책으로는 기업들의 추진 의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각 기업별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 다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이 모두 다르고 기업별 설비 현황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역민 안전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또 민관 합동 현장 조사가 정부기관 합동 단속과 병행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구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여수산단 악취 발생 현황 조사를 위해 여수에 고정식 측정소 2곳을 설치하고 악취측정기·무인포집기를 30곳에 비치하는 한편, 국비 예산을 확보해 이동식 측정차량을 구입하겠다고는 '악취 발생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 수영대회 깨끗한 환경 제공

### 광주시, 춘계 도로정비 마무리

광주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춘계 도로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도로 보수·정비 대상은 7493개 노선 1712km구간으로, 겨울철에 얼었다 녹으면서 파손된 도로와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이다.

광주시는 종합건설본부와 자치구 등 도로관리청과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42일에 걸쳐 도로 정비를 마쳤다. 특히 최근 기후 이변 등으로 여름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111명과 덤프·백호우 등 장비 57대를 투입해 도로노면, 배수로 등 도로시설물도 함께 정비했다.

중점 정비사항은 ▲동절기 도로포장 파손부위 및 노면 요철 구간 정비 및 포장 덧씌우기 27만3200㎡ 구간 ▲교량·터널, 배수로 등 주요 도로구조물 정비 90개소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 414개소 등이었다. /최권일 기자 cki@

## 전남도, 서울 랜드마크서 영상물 제작 전남 홍보

### 광화문광장·경복궁 등서 체험·힐링·일자리 주제

전남도가 광화문광장, 경복궁, 청계광장 등 서울 주요 랜드마크에서 체험, 힐링, 일자리 정책 등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제작해 이색적인 방법으로 전남을 홍보하기로 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청계광장 등에서 각각 '체험'과 '힐링', '일자리정책'을 콘셉트로 영상물을 제작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체험'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통 호남화단의 산실인 진도 윤립산방을 연결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촬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을 지나는 시민이 호기심에 문을 여는 순간, 진도 윤립산방에서 도예가가 고려청자 빛을 방

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형식이다.

'힐링' 영상 촬영은 6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복궁 앞에서 펼쳐진다. 자전거 앞에 있는 문을 열면 전남의 해안도로 등 관광 명소 곳곳을 자전거로 누비는 유명 유튜버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등장한다. 문을 연 시민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며 전남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을 수 있다.

'일자리 정책' 영상물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촬영된다. 이곳의 문을 열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전해온 기구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남지역의 기업과 그곳에서 보람된 일을 하며 행복할 전남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전남도는 '경험할수록 놀라운 곳, 전라남도'라는 제목의 이들 영상물을 오는 8월부터 정책홍보영상, KTX용 홍보영상, 온라인용 바이럴 영상 등 홍보 매체에 맞춰 최대 5분에서 최소 20초로 편집해 활용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블록체인 농산물 유통플랫폼' 과기부 공모 선정

### 국비 21억원 지원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디지털 전환' 공모에서 전남도의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국가디지털 전환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을 공공·사회각 분야에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기부 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개월간 사전 연구역을 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다양한 이력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유통플랫폼' 모델을 개발

했다. 이번 사업은 이 모델을 실제 학교 급식 식재료 유통에 적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에서 생산해 학교 급식과 전남도 온라인 마켓을 통해 거래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 관리와 실시간 이력 추적이 가능해져 전남산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유통 과정에서 매번 제출·발급되는 친환경인증 서류, 시험성적서, 검사·검수서 등 수많은 서류의 전자 확인·기록이 가능해 증명서 발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처리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택시 수송서비스 향상 법인택시 환경점검

광주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택시 수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동 주관으로 마련한 이번 점검은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법인택시 76개사 3377대의 차량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트와 바닥 등 차량 내·외부정결상태 ▲불법 차량 개조 및 장착 상태 ▲택시 운전 자격증 등 차량 내·외부 부착물 상태 등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스티커 등을 차량에 부착해 대회 붐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점검 일정은 택시 부제에 따라 ▲27일 3조 ▲28일 4조 ▲29일 5조 ▲30일 6조 ▲31일 1조 ▲6월3일 4조 및 미점검 차량 ▲6월4일 점검받지 못한 차량 등 순이다. 이 기간에는 점심시간(12시-오후 1시30분)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